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 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 담론의 한계 —

이 정 옥*

1. 문제 제기
2. 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신화의 양상
3. 일제 강점기 모성신화의 한계와 그 사회적 맥락
4. 남는 문제

초록

본 논문의 일차 목적은 일제 강점기의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모성신화를 강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즉 이태준을 비롯한 남성 작가들이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또 어떤 이유에서 모성신화를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모성신화가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고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악용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모성신화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나도향의 『어머니』, 이태준의 『성모』, 채만식의 『여인천가』 등은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희생을 미화이며, 가부장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모성신화의 문학적 재생산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모양처가 국구 전사를 양육하는 ‘민족의 어머니’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며 여성의 정체성은 아이의 양육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당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생생하게 포착되는 어

* 서강대 강사

머니의 고달픈 체험과 비교하여 보면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현모양처가 여성에게 덧씌워진 허위적인 여성상이라는 점은 자명해진다.

1. 문제 제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으레껏 그 사람의 성공담에는 그의 어머니가 부각되고,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로 추앙받으며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은 여성의 정체성과 최고의 성취감은 역시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에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기도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나리오에는 모든 여성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모성을 인류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어머니 역할을 숭고한 것으로 과대 평가함으로써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문화적 금기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신사임당, 한석봉 어머니의 교훈이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금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던 이러한 시나리오의 전범(典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모성(motherhood)을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여성다움은 곧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미화하여 왔다. 또한 ‘어머니’라는 존재는 남성과 여성의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찬미되어 왔다. 모성에 대한 미화는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다. 즉 모성을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어머니 역할이란 여성이 아이를 낳듯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양 그 자연스러움을 옹호하여 왔다. 모성에 대한 미화나 신비화는 여성의 위치를 가정으로 한정하고, 여성의 임무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아이를 양

육하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통념은 어머니 노릇을 실행하는 여성의 실제적인 체험과 분리된 채 여성들에게 '훌륭한 어머니상'을 강요하는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모성에 대한 옹호나 미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성에게 허위적인 여성성을 덧씌워 가부장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보수 담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달리 말하면 가부장제 사회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훌륭한 어머니'라는 사회적인 형식을 부과하여 새로운 '모성신화'의 개념을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모성을 자연적 본질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유포된 모성신화가 역사적으로 반복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형성된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로 굳어지면서 모성은 윤리적 강제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모성을 이행하는 여성의 실제적인 경험은 증발되고 모성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소격된 '성모'라는 왜곡된 개념만이 남아 여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즉 모성신화는 모성의 옹호나 미화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여성에게 훌륭한 어머니라는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형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성은 여성에게 부과된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로서의 힘을 지닌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위력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모성신화는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언어를 장악하고, 지배 집단에 의해 형성된 언어가 사회 역사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신화¹⁾의 단적인 예에 해당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모성은 임신과 출산, 자녀를 보살피는 과정에 투영되는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귀결하는 것은 '여성이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왜곡하거나, 또한 여성이 우위에 설 수

1) 롤랑 바르뜨, 정현 역, 『신화론』(현대미학사, 1995).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모성인 것처럼 오도(誤導)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오도에 따라 자식을 잘 키운 어머니는 사회적인 찬사를 받지만, 그 반대인 어머니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는 가부장제 체제에 순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여성을 천사/악마로 구분하는 이분법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마리아(eva)/이브(eve) 또는 천사/악마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다른 방식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오로지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여자로서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통념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자 하는 일부 여성들에 의한 모성의 거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유효한 방식이 되어 왔다. 그러나 모성신화가 견고한 가부장제에 기대고 있고 역사적으로 거듭 재생산되는 한 모성의 거부는 분명 그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모성 혹은 어머니의 진정한 의미는 가정의 내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역사적인 조건은 물론 제도 등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모성에 덧씌워진 허위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모성신화가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모성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함의를 동시에 포착하여 이를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새롭게 독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일제 강점기의 문학을 대상으로 모성신화의 양상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일제 강점기만큼 모성이 예약화된 시기도 드물기 때문이며 또한 모성신화의 폐단적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신여성²⁾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대화의 세례를 입은 수혜자들이지만, 동시에 민족적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인재를 양육해야 하는 모성의 의무자들로 살았다. 그

2) 신여성의 범주는 1920년대 초까지의 부르주아 지식 계층만을 지칭하는 경우와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에 '현대여성'으로 불렸던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 여성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신여성의 범주를 후자에 두며,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에 대해서는 논지와 무관한 만큼 논외로 한다.

러나 지금까지 신여성에 관한 논의는 자유 연애를 실천한 개인주의자에 국한시켜 딸로서의 신여성을 보았을 뿐 어머니로서의 신여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신여성에 관하여 딸의 서사에만 국한시켜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지점이 가부장제의 틀에 매여있는 어머니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고, 또한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하는 딸의 서사를 지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에서 모성성에 관한 논의가 소홀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소설 이름을 성모(聖母)라 했습니다. 종교사회에서 일르는 그 성모는 아니요 다만 '가장 훌륭한 어머니'란 뜻으로 부칩니다. 한 훌륭한 어머니, 그의 사랑이면 그의 지혜이면 그의 의지이면 모든 것을 믿고 오직 머리 숙이고 십흔 거룩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끈히지 안을 것입니다. 나도 그 마음이 진작부터 간절한 바 잊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려합니다.³⁾

이는 이태준이 「성모」를 신문에 연재하기에 앞서 언급한 말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모성신화는 모성을 경험하는 신여성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머니 노릇하기의 힘든 과정은 배제되고 민족의 이름을 내세워 강요된 측면이 강하다. 이 글의 일차 목적은 일제 강점기의 작가들 특히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모성신화를 강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태준을 비롯하여 남성 작가들이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또한 어떤 이유에서 모성신화를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모성신

3) 이태준, 「신문소설계의 경이적 거편 신연재장편소설 성모-작가의 말」, 『조선중앙일보』(1935. 5. 22).

화가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고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악용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모성신화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신화의 양상

문학 작품에서 신여성의 연애 갈등은 대체로 '사랑이나 돈이나'의 선택으로 집약된다. 반면 신여성들의 모성 갈등은 '사랑이나 모성이나'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나도향의 「어머니」(1929)는 여성 개체로서 겪는 연애 갈등과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모성 갈등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서 자못 흥미롭다. 신여성 영숙은 속물적 배금주의자인 홀어머니의 권유로 돈 많은 부농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숙이 비록 민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첩의 신분이지만 남편 철수의 돈은 영숙이 살아가는 물질 토대가 된다. 생활고에 쫓겨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첩이 된 영숙의 결혼 과정에는 애정보다는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결혼을 하였던 당대 신여성들의 실상⁴⁾이 반영되어 있다.

영숙은 딸까지 낳았지만 민적에 오르지도 못하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는 물론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를 안고 살아간다.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 영숙은 우연히 과거의 애인이었던 춘우를 만나게 되자 사랑 없는 남편과 헤어지고 춘우와 사랑을 선택한다. 남편을 버리고 춘우를 택한 영숙의 사랑은 그 현실적 기반이 허약한 만큼 길게 가지 못한다. 대학을 나온 립펜 지식인인 춘우의 경제력은 도시 빈민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당대의 사회 현실상 이들의 생활은 전남편인

4) 三清洞人, 「女學校를 卒業하고 妾이 되어 가는 사람들」, 『신여성』(1924. 4), pp.48~55.

철수에게서 받았던 패물에 의존하는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난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춘우와의 '사랑'을 선택한 영숙은 비로소 완전한 개체로 존립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딸 청아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영숙의 갈등은 '돈'과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사랑'과 '모성'의 선택 갈등으로 전환된다. 애정 갈등에서 모성 갈등으로의 전환은 모성이 여성의 본분임을 깨닫는 모성 각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청아가 있는 전 남편 철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급하게 귀결된다. 이 귀결의 당위성은 곧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은 본능이며 위대한 것이라고 미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단적인 측면이다.

모성 각성에 무리한 당위성의 부여는 결국 서사 구조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우선 영숙이가 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는 서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영숙은 돈 때문에 자신을 칩으로 팔아넘겼다고 어머니에게 적의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춘우와 결합을 선언한 이후 어머니와 큰 싸움을 치른바 있다. 또 영숙의 어머니의 실상으로 보면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성과는 거리가 멀다. 영숙 어머니는 <영숙의 정조보다 철수의 돈이 더 귀하고 철수를 위하는 것보다 철수의 재산을 더 위하고>, <돈이 나올 구멍을 틀어막을 경우에는 자기 딸 아니라 무엇이랴도 사생을 결단하고 덤비>는 철저한 배금주의자이다. 또한 철수에게서 돈을 받고도 병이 난 외손녀 청아를 돌보지 않아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비정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영숙의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자는 <기쁘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며 흥분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술자의 진술에서 모든 어머니된 자에게는 모성이 있고 그 모성은 바로 자식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항상 감사와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공허한 공식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공식은 심지어 영숙의 어머니와 같이 비정한 어머니조차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모성을 여성의 고유한 속성으로 환원시킨다.

또한 영숙의 모성 갈등 과정에는 모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들어 있다.

춘우와의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영숙은 춘우와 결합하기 위해 철수가 제공하는 물질 토대는 물론 딸 칭아까지 포기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영숙은 아픈 칭아를 가슴에 안고 <핏속에서 꿈틀대는 모성의 사랑>으로 몸을 떨며 모성에 충실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그 순간 영숙은 철수에게서 받았던 <부자유함>, <허위>, <매음적 안일한 생활> 등 비인격적인 모멸감, 춘우와 결합하기까지 갈등했던 모든 고민, 자기 존재 가치의 확인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모성애만이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영숙은 모성 각성의 계기로 인하여 <죄악>으로 평가받았던 그 동안의 행적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신성한 인간의 본능과 양심>을 지닌 성모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지 자기 정체감, 어머니 되기의 고달픔 등은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의무만이 남게 된다. 텍스트의 지향점은 바로 여성이 자신의 의무인 모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계몽성에 있다.

과도한 모성 이데올로기의 옹호로 인한 서사적 파탄은 영숙을 바라보는 춘우의 플롯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춘우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탓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감옥 속같이 쓸쓸한 조선 사회에서> <나침반을 꺾어버린 배 모양으로 지향없이> 방황하는 모성 결핍 콤플렉스적 인물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애인이었던 영숙과 헤어지고 난 후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무기력하게 부표하는 롬펜으로 살아간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숙이가 철수의 첩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돈에 사랑을 판 창녀>라고 강하게 비난을 퍼붓는다. 그 후 영숙과 결합한 춘우는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되고 행복감을 맛보지만, 딸 칭아 때문에 철수에게로 돌아가는 영숙을 <사소한 질투심을 버리고 큰 진리를 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단념한다. 그리고 모성을 회복한 영숙을 <천사>로 미화한다.

엘렌 케이 여사가 말하기를 구주 전쟁 당시에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

여 용감스럽게 싸우던 용감한 남자들이 불행히 몸에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 침대 위에서 적막히 최후를 마칠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어머니!’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다, 상대가 아니다. …… 이 세상에 어떠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랴! 누가 자기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여 그 무한히 인자하고 무한히 다정하고 고마움을 사례하지 않는 이가 있으랴! 어머니는 자식에게 들어서 천사이며 피난처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춘우의 마음은 다시 자기의 몸으로 돌아왔다. …… 거룩한 어머니가 오늘에 계셨더라면 하는 그리운 비애를 느낄 때, 그는 다시 영숙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었다.⁵⁾

서술자의 목소리로 춘우의 내밀한 모성 결핍 콤플렉스를 전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거룩한 어머니’에 대한 찬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나 찬미는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머니를 바라는 것은 유아적 환상에서 출발한다.⁶⁾ 그러므로 모성 수호의 사명감에 불타는 춘우의 모성 결핍 콤플렉스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유아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춘우에게서 어머니는 곧 조국이요, 모성의 부재는 <감옥 속같이 쓸쓸한 조선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모성이란 조국 상실의 비애를 달래 주는 절대적 구원으로 비약된다. 이러한 비약은 춘우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의무감을 정당화하고 영숙에게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남의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지켜주기 바라는 구원의식으로 승화된다. 자신을 떠나 청아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돈 많은 철수의 첩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의 서두에서 영숙에게 <사랑에 돈을 판 창녀>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천사>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춘우가 영숙을 대하는 태도에는 모성을 수호하는 여성은 ‘천사’요, 모성을 외면

5) 나도향, 「어머니」, 『나도향 전집』 하권(집문당, 1988), p.510.

6) 배리 쏘온·매릴린 알론 편, 권오주 외 공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아카데미, 1991), pp.90~91.

하고 자아를 찾는 여성은 '창녀'가 되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이분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모성의 미화가 조국이나 '민족의 어머니'로 비약되는 위험은 제국주의 모성론으로 경도된다는 데 있다. 일제에 의해 강요되었던 제국주의 모성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태준의 「성모」와 채만식의 「女人戰記」는 모성신화의 극단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성모」(1935~36)에서 전반부가 애정 갈등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반면, 후반부의 사회적 이념은 모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태준의 다른 소설과 달리 개인의 욕망에 머무는 전반부의 삼각관계에 대한 비중이 약화되는 한편, 의식의 획득 과정과 그 실현 과정에 무게가 실어진다. 오히려 전반부의 삼각관계는 후반부에서 안순모가 '홀륭한 어머니'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아버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인류의 어머니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뿐이다.

내 부모님은 죄송한 말이나 사회가 그들에게 별로 기대함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업는 것처럼 장래에도 야모것도 업슬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린 사람은 우리가 기대함이 크다. 기르기에 달리었다. 미지의 싹들이다. 이 어린이들까지 오늘의 어른들이나 다름없는 무능한 사람만이 되어버린다면? 오, 그것은 얼마나 암흑이나? 최후의 절망이 아니고 무엇이나? (...중략...) 가정으로 보아도 네가 더 내한테 귀한 사람이요, 사회로 보아도 늙은이보다는 어린이가 더 귀한 사람들이다. 내 사랑도 빗날 수 업는 것인 이상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달게 바치마. 네가 나갈 길을 위해선 곡괭이처럼 일허마. 네 길을 쓸 빗자루가 되어도 조타⁷⁾

연애에 실패하고 예술가 박정현과의 결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자 오로지 현실에 대한 치떨리는 환멸만이 남은 순모에게 새로운 희망은 '미지의 싹'인 어린아이를 제대로 키워 보겠다는 결심에 있다. 더 이상 희망이

7) 『이태준 문학전집』 7권(서음출판사, 1988), pp.336~337.

없는 부모 세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대를 위하여 <곡괭이나 빗자루가 되어 모든 것을 달게 바치>겠다는 순모의 결심은 개인적인 이기심에 바탕을 둔 모성이 아니라 분명 민족 구원의 성격을 지닌 민족적 모성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순모가 철진(“조선에서 대포처럼 비행기처럼 기관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鐵進이라고 작명하였음)을 민족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태도와 순모의 어머니가 오직 딸만을 위하여 외손주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태도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순모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구세대의 모성이 개인적인 안위만을 추구한다면, 순모의 모성은 개인의 안락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물론 이태준이 제시하는 이러한 모성론이 이기적인 개인의 차원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성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어서 여성의 구체적 모성 경험이 그 속에 매몰되고, 모성을 경험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차단되어 있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생아를 낳아 여성의 민적에 올리는 것이나 여성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모에게서 아이를 사생아로 만듦으로써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나 수난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그러한 고민이나 갈등은 사생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림으로써 애초부터 문제삼지 않게 된다. 사생아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도 순모의 갈등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를 계기로 더욱 강인하게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에 전념하게 된다. 매 위기 때마다 순모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자각의 정도를 강화하고, 중국에는 ‘위대한 모성’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순모가 자신을 체질적하며 다가가는 위대한 모성이란, 순모라는 인물의 자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서사 밖에서 서술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혼란에 빠진 순모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

겠다>고 결심하는 동기 역시 서사적인 계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바깥에서 몰아치는 서술자의 훈계조의 목소리다. 물론 작품 내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순모의 ‘마음의 연설’인 것으로 꾸며대지만, 순모의 목소리라고 판단할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분명 교사자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순모는 스사로 대답도 해보았다. ‘사회가 용납치 않는다? 아이의 노예가 되기 실태? 그건 벌써 산사람의 말이 아니다. 정말 사회에 나서 일하려는 정렬에 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왜 혼자 일하지 못하는가?’

(…중략…) 순모는 눈을 꼭 감고 자기의 마음의 연설을 듯기만 하였다. (…중략…) 어떤 위인이던지 그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단 말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업는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어머니가 업섯기 때문이다. 못생긴 어머니들이 못생긴 자식들만 남겨 노은 때문이다! 순모야? 그러치 안흐면 아니라고 해보아라? (…중략…)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어머니에게서 …… 그러타 얼마던지 위대한 힘을 이 세상에 펼쳐볼 수 잇는건 남성이기 전에 여성이다. 너는 그 큰, 그 거룩한 야심이 업단 말이나? (pp.261~262)

이러한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를 들은 후 순모는 태교에 관한 책과 아기를 위한 옷감을 꿰어오는 등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게 된다. 이후로도 이러한 종류의 자문자답은 계속 이어지는데, 자문자답을 통하여 순모는 더욱 ‘훌륭한 어머니’ 교육의 수혜자가 된다. 이렇듯 작품의 후반부에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계몽적 훈계로 일관되고 있다. 즉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태교와 유아 교육, 구세대 부모들의 대자식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신세대 부모의 자식 교육에 관한 방향 제시,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 육체적인 운동선수보다 정신적인 운동선수의 필요성, 조선의 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 즉 조선어와 조선문화의 중요성의 강조, 외국

어 교육의 필요성, 대중 통솔 능력과 연애 문제 등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로 할애된다. 따라서 매우 지루할 뿐 아니라 소설적 미학도 현저히 떨어진다. 드문드문 김상철이나 박정현과의 재결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모의 굳은 결심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소설 구성상의 결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인 남성들에게조차 일자리가 쉽지 않아 실업자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신여성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로 들어가거나 윤락 여성으로 전락하였던 당시의 경제 상황⁸⁾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취직으로 생계 문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 점,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김상철의 헌신적인 순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정을 유지하는 점 등은 계몽성을 강화하기 위해 빚어낸 무리수이다. 이렇게 우연의 남발과 함께 빚어진 구성상의 무리수로 인하여 소설의 리얼리티는 현저히 결여되고, 인물에 의해 육화되지 않은 관념적인 계몽성만이 남는다.

이처럼 나도향이나 이태준의 관심은 시종일관 이상화된 모성을 계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은 단순히 위에서 살펴 본 소설 구성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선 모성을 이상화하는 태도로 인하여 여성 인물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체험으로서의 모성은 외면되어 있거나 아예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처한 환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성의 체험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화하는 것은, 모성에 대한 왜곡이요 굴절이다. 영숙이나 순모의 불행한 삶을 보상해 주는 것 역시 모성 이데올로기이다. 당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유 분방하게 연애를 하거나 자유 연애의 결과물인 사생아를 키운 여성이라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훌륭한 사회 일꾼으로 키움으로써 <그의 사랑이면 그의 지혜이면 그의 의지이면 모든 것을 믿고 오직 머리 숙이고 심혼 거룩한 어머니>로 추앙받게 된다.

8)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 분과 편, 『한국여성사(근대편)』(풀빛, 1992), pp.47~71.

또 하나, 나라의 운명이 모성의 역할과 임무에 의해 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 양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국가의 장래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국면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 중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어머니’에 의한 개혁만으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물론 염상섭의 「만세전」이나 「무화과」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풀 한 포기 심을 수 없는 불모성의 공동묘지와 같이 극도로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절망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심분 이해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남성 부재의 상황을 설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힘만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이태준은 여성에게 현실적 의무를 부과한다. 즉 작가는 남성의 대사회적 책임은 괄호로 묶어 면책시켜주고, 이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희생에 달렸다는 당위성을 교화시킨다. 작품 내에서 교사자 역할을 담당하는 서술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계몽적 훈계로 일관하는 목소리에도, 희생적 어머니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미화하는 것에도 작가의 남성 중심적 시각이 여실히 담겨져 있다.

남성 작품들에서 어머니를 ‘민족의 어머니’로 관념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는 어머니 노릇의 고달픔이나 어머니와 여성 개체로서의 자아 찾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체적 경험을 담아 내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지주의 첩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쫓겨나 술집 작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파멸하는 어머니의 삶(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가며 낙태를 감행하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체험(「소금」),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동냥질과 매음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의 불행(「인간문제」), 극빈한 가난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힘들게 출산하는 어머니의 산고(백인애의 「적빈」, 임옥인의 「産」)에는 일제 강점기에 어머니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이의 얼굴에서 이혼한 남편의 형상을 발견하자 뺨을 때린다는지(최정희의 「정적기」), 생활고를 책임져야 하는 힘겨움으로 인하여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에 대해 회의하고 무능한 남편과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곡상」)에서는 어머니 된 여성들의 체험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고달픈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하기의 신산한 체험은 이상화된 성모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모성신화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허위적인가를 입증해준다.

성모에 대한 찬미 내지 미화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사회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등장하게 마련인데,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가 표방하였던 제국주의 모성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의 역할이란 아들을 구국 전사로 키워 전장에 내보냄으로써 국난 극복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훌륭한 전사를 키워 낸 어머니를 찬양·화합으로써 여성의 희생을 사회적으로 보상해 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모성론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지위는 ‘야스쿠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마치 신으로부터 잠시 맡은 신의 아이를 신에게 돌려주듯이 여성은 ‘국가의 것’인 아이를 우연히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키워서 국가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요한다.⁹⁾ 불행한 순모의 삶이 항일 구국 전사인 철진을 잘 키운 것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제국주의 모성론의 연장선상에 놓여진다. 더구나 <제일 현명한 조선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순모의 역할은 “이등방문인 외국으로 만히 댕겨서 눈이 넓어서 성공했다구 그랬지이? 대원군은 나긴 잘났서두 외국 구경을 못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이 좁아서 실패했다구 ……”(p.399)의 대목에서 보면 ‘민족의 어머니’의 정체가 모호해진다.

제국주의 모성론에 경도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방 후 이태준은 친일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민족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를 내세우는 「불사조」(『현대일보』, 1946. 3. 27~7. 19, 미완소설)를 발

9)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29.

표하였다. 그러나 연애에 실패하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여란의
플롯, '민족의 어머니'를 계몽하는 서술자의 교사적 목소리, 그로 인한 서
사구조의 파탄 등은 「성모」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채만식의 「여인천가」(1944~45)는 「어머니」나 「성모」의 문제점을 오히
려 담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모성론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고 있는 점에서 위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그치
지 않고 일본 여성들을 찬양하고 조선의 여성들을 계몽하는 수단으로 이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지의 어머니들은 이천육백여 년을 두고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여 아들네
를 전지에 내보내되, 동치 아니하도록 도저한 도야와 훈련과 그리고 자각 가
운데서 살아내려왔다. 그런 결과 일본 여성은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에 바쳤으
되 조금도 미련겨워 하며 슬퍼하는 등 연약한 거동을 함이 없이 가장 늠름하
기를 잊지 아니하는 친품이~정신이 잡히기에 이르렀다. 어머니 된 정에 노상
어찌 슬픔이 없을 리가 있을꼬마는 한때 속으로 슬퍼하였던지 혼자서 암루(暗
淚)나 흘리면 흘렸지 일상에 상심하는 얼굴을 지닌다거나, 항차 남 앞에서 눈
물을 보인다가나 하는 법은 전연히 없다. 여러 백 년을 나라와 나라 위할 줄
을 모르고 오직 자아 본위, 가정 본위, 오직 일가속 본위로만 살아온 조선 백
성은 따라서 어머니들의 군국에 대한 정신적 준비랄 것이 막상 충분치가 못하
였다. 빈약한 편이 많았다.

“나라는 개인보다 중하니라.” “민족의 번영은 언제나 그 민족의 젊은이가
흘린바 피와 정비례하느니라.” 조선 사람의 귀에 이런 외침이 울리기는 바로
최근 몇 해에 비롯된 것이었다.¹⁰⁾

이는 소설의 서두 부분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나간 아들 철이를 그리워
하는 옥동댁(진주)의 심리를 묘사하기에 앞서 서사 밖에 있는 서술자의
교화적 목소리로 제국주의 모성론을 계몽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일본
의 동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경도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

10) 『채만식 전집』 4권(창작사, 1987), p.310.

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본을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전쟁에 기꺼이 내보내는 일본의 여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훌륭한 어머니’인 반면, 일본을 위해 조선의 아들들을 전쟁에 기꺼이 내보내지 않는 조선의 여성들은 자기 본위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하고 있다. 서사 밖에서 인물들을 교사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역사적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작가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옥동댁 역시 순모와 마찬가지로 아버 부재의 상황에서 아들 철이와 딸 문주를 훌륭하게 키운 위대한 모성에 충실한 인물이다. 옥동댁은 심술긋은 과부 시어머니로 인하여 파란 많은 삶을 살았던 여성이다. 시집에서 쫓겨난 이후 상경하여 여학교를 마친 옥동댁 진주는 신여성의 면모를 지닌다. 그러나 사랑과 모성 중 모성을 선택했던 영숙이나 순모와 달리 진주는 오로지 남편 준호에게 일편단심을 바치고 준호가 폐병으로 죽은 후 혼자 힘으로 아들과 딸을 잘 키운 전형적인 현모양처에 해당한다. 진주의 시어머니가 오로지 아들의 안위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구여성의 어머니상으로 그려진다면, 진주는 아들 철이를 <자랑스러운 일본의 군인>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시킨 위대한 어머니이다. 아들 철이가 그리워 사진을 보는 자신의 태도와 입영하는 외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윤희네의 태도를 비교하며 <시방은 걸으로 내색하지 않아야 장한 어미 노릇>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진주의 이러한 태도는 아들을 구국 전사로 키워 전장에 내보낸 장한 어머니라는 허위적인 모성상을 의식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에는 여성의 덕목이란 ‘자랑스러운 군인을 길러내는 장한 어머니 역할’에 충실한 것에 있다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만드는 강제력이 스며들어 있다. 진주의 반민족적 의식은 구국 전사를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일본인 장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203고지에서 전사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일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텍스트 곳곳에서 드러난 친일성은 진주의 아버지 임중위가 일본의 내무회전 소장에게 “소관은 조선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소관의 마음의 나라는 일본이올시다”라고 말한다거나, 일본 여성과 연애하여 아들을 낳고 일본 여성을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하면서 “확실히 조선 여인들보담 낫습니다. 본받을 구석이 많습시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임경식 중위는 <우정국 사건의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김옥균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온 사람>으로서 <무도 세계를 이루려는 聖戰>에 참전하여 ‘皇軍’이 되어 동아 신질서의 건설이나 대동아공영이라는 일제의 슬로건을 위해 매진하다 죽은 인물이다. 남의 나라인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여 죽음을 불사한 아버지 임중위를 찬미하고, 이복 동생 일본 장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또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아들 철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주의 모성적 태도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영입된 조선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조선인의 소멸’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친일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당대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여인전기」를 보면, 「조혼기」, 「여자의 일생」, 「아름다운 새벽」 등과 같이 조혼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선 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제 말기는 ‘황민화’ 또는 ‘생활의 내지화’ 등 열등한 조선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자는 ‘내선일체론’이 만연해 있었고, 독립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암담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일제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일제에 동조(민족주의의 진영)하거나 전향(카프 계열 진영)하였다. 채만식도 이런 지식인 중의 하나였으며,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억압된 여성의 독립과 해방의 문제를 다룬 바 있는 그의 업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제국주의 모성론의 새로운 포장에 지나지 않는 「여인전기」는 <천황을 위한 혈전>을 합리화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장에서 죽어가는 조선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조선의 어머니>에 대한 찬미라는 점에서 반민족적 친일 문학¹¹⁾이요 사상적 노예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3. 일제 강점기 모성신화의 한계와 그 사회적 맥락

지금까지 나도향의 「어머니」, 이태준의 「성모」, 채만식의 「여인전기」가 ‘훌륭한 어머니상’을 제시하기 위해 씌어진 계몽소설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 모성론에 영향을 받았거나 동화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시대와 사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모성신화가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모성신화가 절정을 이루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일제 강점기와 맞물려 있는 근대화 과정의 여성 교육을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 여성들은 칠거지악, 삼종지도 등과 같은 굴레 속에서 살았으며, “母以子貴 妻以夫榮 蓋女子地位 惟觀其夫顯達之 如何而尊卑有差”¹²⁾라 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아들이나 남편의 지위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예측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다 개화사상이 사회 전반에 침투된 1890년대 이르러 남녀 불평등의 습속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개화운동의 선두에 섰던 독립신문의 논설에는 “…… 여편네가 사나히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히들의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히들이 문명개화가 못되어 이치나 인정은 생각치 않고 다만 자기의 팔힘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오……”¹³⁾와 같이 남녀 차별과 여성 천대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성들의

11) 채만식 문학의 친일 문학성은 「여인전기」 외에도 「아름다운 새벽」, 「상경반절기」, 「혈전」 등과 같은 작품과 「몸뚱이 시시비비」, 「대륙경도의 장도, 그 세계사적 의의」 등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일문학성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12) 이능우, 『조선여속고』(계명, 1968), p.98.

13) 『독립신문』(1896. 4. 21) 논설.

미개로 돌리고 있다. 독립신문이 내세우는 이 새로운 여성관은 점차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근대적 여성 교육관이 성립하는 데 기초로 작용하였다.

근대의 출발점이 국가의 위기와 맞물려 있었던 근대화 초기 과정에서 여성 교육은 ‘국가를 부강시키는 힘의 원천이 여성의 힘에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여성 교육은 애국계몽운동과 결부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민중 계몽에 앞장서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여성 교육론의 핵심은 부국강병의 초석이 되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힘쓰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문명한 현모양처’ 교육에 있다. 현모양처 교육론은 황성신문의 논설에서 “..... 여자를 교육함은 즉 남자를 교육하는 모범이니 누구나 여자는 남자의 母라. 그 母의 행실이 부정하면 其子의 藹然한 心이 必其母를 從하여 멸망할지니 此로 由觀하건데 여자의 교육을 豈尋常에 付하리오.”¹⁴⁾라고 하였던 것처럼 여성 개체에 대한 교육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명한 현모양처’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던 여성 교육론은 이광수의 ‘자녀교육론’과 스승인 남성의 교육에 따르는 여성의 서사를 주로 다룬 계몽주의 문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자각을 얻은 신여성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해방에 역점을 두며 의식 개혁의 범위를 넓혀 갔다. 신여성들은 여성 교육이 국가 발전과 사회 진흥의 원동력이라는 식의 남성 중심의 모성 담론에 국한되었던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근본 의의를 극히 간단하게 말하면 ‘幼小者의 개발’이니 그 유소자가 남아요 여아됨에 따라 그 이상이 다를 理가 없을 것이요, 여자는 남자와 같이 인성을 구비하였고 천품의 능력이 있으나 나서부터 완전치는 못하니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그들도 사회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생존을 보존케 하며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외다. 사람

14) 『황성신문』(1908. 2. 6) 논설.

만든다는 뜻은 무의미하고 철저히 못한 소위 현모양처라는 기계를 만들지 말고 독립한 인격을 양성하여 사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¹⁵⁾

여자 유학생이 익명으로 발표한 「여자교육론」이라는 이 글에는 오로지 현모양처라는 틀에 박힌 여성상을 추구하는 여성 교육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비판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때 진정한 국민 계몽과 참다운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에 있어서 여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남성들과 신여성들 간의 모성 담론의 차이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에서도 이어진다. 김동인·이광수·염상섭 등과 같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물론이고, 근대문명의 최초의 수혜자였던 김명순·김일엽·나혜석의 작품이나 행적에 대해 집중되었던 당대의 혹독한 비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대부분 신여성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김동인의 「김연실전」이 대표적인 예), 신여성이 자유연애의 결과로 임신할 경우 유산이나 낙태를 시킴(김동인의 「약한자의 슬픔」, 염상섭의 「제야」 등이 대표적인 예)으로써 모성의 경험에서조차 소외되는 불모성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다르게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신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의 지난한 과정(나혜석의 「경희」가 대표적인 예)이나, 모성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어려운 현실 견뎌내기의 신고가 그려지고 있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한편 1920년대에 들어서서 엘렌 케이나 코론 타이의 영향을 받아 여성해방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자유연애론, 결혼론, 모성론 등을 주장하였던 엘렌케이의 사상은 순전한 연애 지상주의가 아니라 처

15) 『여자계』 제3호(1919. 9), p.6.

녀의 순결성과 자녀 분위의 결혼 생활을 강조하는 모성론을 강조하였다. 반면 사회주의적 연애론에 입각한 코론타이는 완전한 자유연애를 주장하였으며 모성 역시 사회적 직분으로 전환시켰다. 현모양처 양성에 바탕을 둔 여성 교육론이나 자녀 중심론을 주장하는 남성 중심의 모성 담론이 코론타이를 배격하고 엘렌 케이의 모성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유 직능이며 영역인 어머니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남녀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엘렌 케이의 주장은 기존의 '현모양처 교육론'과 손잡고 모성론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활성화된 모성론은 식민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와 맞물려 제국주의 모성론의 경도로 이어졌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는 조선의 사회상을 간파한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식민지 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을 시키고 '충량한 식민지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제국주의 모성론을 주입하는 여성 교육 정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¹⁶⁾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일본은 특히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면서 파시즘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을 경제적으로 황폐화시켰고, 사상적으로도 일선동조론을 앞세워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제국주의 모성론 역시 이러한 일선동조론의 하나로 이루어진 여성정책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모성론은 중일전쟁 초기부터 총력전을 펼치려는 야욕에 불탄 일본 정부가 후방에 있는 여성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만주사변이 있는 다음해인 1932년 '대일본국방부 인회'를 결성하여 여성의 조직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성 보호 논쟁을 벌여 국가가 모성을 관리하는 체제로 돌입하였다.¹⁷⁾ 그러므로 제국주의 모성론은 전시 체제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성신화의 군

16) 박용옥, 「일제의 식민지 여성정책과 민족문제」, 남인숙 외, 『여성과 한민족』(학문출판사, 1996), p.21.

17)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pp.22~31.

국주의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애초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모성신화는 동기화가 부재할 때마다 또 다른 사회 역사적 동기를 찾아 모성신화의 모터를 작동시키며 재생산된다. 모성신화는 사회 역사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모성의 개념화된 형식을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과 굴절이 심화된 모성신화에는 모성을 체험하는 여성 자신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고 형식화, 관념화된 모성의 기표만이 떠돌 뿐이다. 제국주의 모성론은 모성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양상으로서 일제 말기에 나타난 모성신화의 또 다른 기표에 해당한다.

「어머니」, 「성모」, 「여인전기」는 당대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어머니상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이를 이상화하고 있다. 모성의 이상화 즉 완벽한 어머니란 자기 희생적이며 끊임없이 주기만 하기 때문에 가부장제 안에서 어머니란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무력한 존재이다.¹⁸⁾ 그러므로 모성에 대한 미화의 이면에는 자녀의 교육은 물론 사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최대의 행복을 오로지 아이를 잘 키우는 데에 두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을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에서만 찾도록 강요한다.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 찾기의 대사회적 통로를 막아 버리고,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아이의 양육자로만 한정시킬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역할이 단순한 유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이룩할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는 역할로 승격됨으로써, 비로소 여성은 교육과 제도의 소외에서 벗어나 교육의 혜택을 입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이후 여성 교육이 강조되고, 여성 교육의 핵심이 자녀 교육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와 궤를 같이 한다.

18) 배리 쏘온·매릴린 알론 편, 앞의 책, p.79.

현모양처 교육론은 근대 이후 비로소 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일면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를 잘 양육하여 민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부차적인 존재로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자아를 추구하는 한 개체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모성으로서의 여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마리아형의 여성만을 인정할 뿐, 자아를 추구하는 이브형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두 가지 시각만이 존재하는 남성들의 사고 방식은 모성을 지닌 여성을 정숙한 여성으로 미화하고, 사회적인 보상을 보장해줌으로써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길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아에 집착하는 여성에게는 가차없이 창녀나 마녀로 비하시킴으로써 모든 죄악의 원천인 양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¹⁹⁾ 달리 말하면 여성이 지닌 동일한 지혜도 모성을 추구하면 선으로 격상시키지만 자아를 추구하면 악으로 격하시켜 버림으로써, 남성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편협한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모성 이데올로기는 남성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기제로서 작동되는데, 시대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모성신화가 재생산되는 이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부장제 논리대로 한다면 사회는 남성들의 고유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가 암울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성들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그 현실적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겨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들은 사상적 교사자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으며, 정신적인 인물로서의 고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고결한 정신을 소유하는 남성들의 품성을 기리는 이태준의 '선비정신'도 이것의 다른 이름이다. 「성모」나 「여인전기」의 아버지 부재의 상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성들의 책임의식을 전혀 찾아 볼

19) 자포니쿠스 기획, 『어머니와 창녀-새로운 페미니즘을 위하여』(지인출판사, 1994), p.14.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책임 추구의 통로조차 아예 차단시켜 버린다. 남은 것은 여성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뿐이다.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기를 살려 위축된 권위를 추켜세워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희생의 미덕을 발휘하여 인재를 양육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을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부양을 떠맡아야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여성의 희생만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거듭 되풀이됨에 따라 남성의 지배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성신화 역시 여성에게 허상화된 여성성을 덧씌워 가부장제 질서로 복귀시켜 여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기제이다.

4. 남는 문제

남성 작가들의 장편소설을 통하여 모성신화가 재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자 목적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어머니」 「성모」 「여인전기」 등은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희생을 미화하는 모성의 찬양이며 가부장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모성신화의 문학적 재생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모양처가 구국 전사를 양육하는 ‘민족의 어머니’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며 여성의 정체성은 아이의 양육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포장에 다름 아님을 보았다. 당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고달픈 체험을 통해 이들의 현모양처가 허상적인 여성상임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허위적인 여성상을 덧씌워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무의식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임종국이 강경애의 「모자」를 읽는 방식에는 이러한 가부장적 무의식이 잘 드러나 있어서 주목을 끈다.

임종국은 「모자」의 승호 어머니를 <여성 본연의 삶을 살았던 신세대의 열녀요 현모>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구시대의 어머니들이 윤리에 의해서 강요당한 것>과는 달리 승호 어머니의 모성에는 <순수한 본연으로 환원한 것이기에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가치와 의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행적은 물론 그들의 작품에 대한 폄하적 시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들이 <여성의 해방과 평등을 위해서 여성 본연의 현모양처의 윤리마저도 거부한 성급한 여권론자>이기에 그토록 부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비해 <여성 본연을 각성한> 승호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만 현실을 호흡하는 철저하게 아내요 어머니의 삶을 가장 충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상이라고 평한다.²⁰⁾

여기에서 우리는 현모양처가 곧 여성의 본질적 삶이요,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만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요하는 모성신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승호 어머니가 <만주사변 이후 인심이 야박해진 용정>을 떠나 남편이 묻힌 산으로 가는 것이나 백일해로 죽어가는 아들을 안타깝게 끌어안으며 숨을 빨아들이는 알뜰한 모성애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승호 어머니가 산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절과 시형네 집에서 거부당하는 모멸, 모자가 연명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 백일해를 앓는 승호 때문에 잃게 되는 고달픔, 백일해 기침을 하는 승호 때문에 알미운 동서에게 울며 매달려야 하는 심적 고통, 죽어가는 승호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야박해진 인심에 대한 원망 등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일 운동가의 식구를 받아 줄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현실적 토대를 잃은 승호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죽은 남편의 가치 있는 죽음을 생각하

20) 임종국, 『한국문학의 민중사』(실천문학사, 1986), pp.213~227.

며 백일해로 심하게 앓아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못다 한 사업을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하는 승호 어머니의 외침은 차라리 신산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절규에 가깝다.

모성신화에 입각한 임종국의 글읽기 방식은 페미니즘적 프리즘으로 문학을 읽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우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비판하는 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하는 남성 중심주의적 비평에 대한 메타비평도 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페미니즘 비평의 방법론을 늘상 '정전 새롭게 읽기'와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기'에 두어 왔다. 필자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 남성 비평가들의 남성 중심주의적 비평에 대한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읽기, 즉 '페미니즘적 메타비평'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1896. 4. 21.

『신여성』, 1924. 4.

『여자계』, 1919. 9.

『황성신문』, 1908. 2. 6.

박용옥, 「일제의 식민지 여성정책과 민족문제」, 남인숙 외 편, 『여성과 한민족』, 학문출판사, 1996.

서강여성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9.

이능우, 『조선여속고』, 계명, 1968.

임종국, 『한국문학의 민중사』, 실천문학사, 1986.

자포니쿠스 기획, 『어머니와 창녀-새로운 페미니즘을 위하여』, 지인출판사, 1994.

한국 여성연구회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출판사, 1992.

롤랑 바르뜨, 정현 역, 『신화론』, 미학사, 1995.

배리 쏘온·매릴린 알론 편, 권오주 외 공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

아카데미, 1991.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Abstract

Aspect and Limitation of Motherhood Discourse Represented in Literature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 Motherhood Myth, Another Oppressive Mechanism of Women -

Lee, Jung - Oak

The first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spect of motherhood ideology which was forced to women in the name of nation among male writer's works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thesis intends to clarify how the male writers including Lee, Tae-Jun concretely describe the image of 'present respectable mother' and in this process, how the motherhood ideology is permeated and why the motherhood myth is reproduced. Evenmore, this thesis is going to reveal the falsehood of motherhood myth by looking into the process in which holy mother myth follows the Japanese assimilation ideology and it is abused by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Na, Do-Hyang's *Mother*, Lee, Tae-Jun's *Holy Mother*, Chae, Man-Sik's *Women's Biography* show the literary reproduction of motherhood ideology which embellishes the sacrifices of women in the name of motherhood to overcome the national ordeal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contributes to strengthen the patriarchy. Also, the realm of women is still confined to home and the women's identity is obtained only

through the nursing, which is no more than motherhood ideology, though the image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is changed into that of 'nation's mother' who brings up patriotic combatant. Compared with the weary experience of mother lively presented in the works of contemporary female writer, the fact that the image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in these works is the fictitious image of women becomes clear.

